

만남

01

2019
통권 540호

특별기획 | 일상에서 제자답게

신년특집 | 거룩한 공회와 새 생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축복의 손길!

지난 11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본당 정문을 나서는 교우들에게
김운성 위임목사가 축복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만남

2019년 1월호 통권 540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9. 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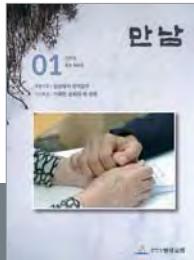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사진 유승현 기자

표지설명



새벽기도회를 향하는
눈길 위벌자국과
어느 교우와 목회자의
기도손길 위 은혜자국이
중첩되고 있다
생명 낳아 기르는 모습으로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차
례

이달의 말씀 02 ·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 김운성

특별기획 04 · 영락 기독경조인 좌담회

일상에서 제자답게 생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기독경조인
| 김희정, 박근우, 조덕일

신년특집 거룩한 공교회와 새 생명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09 · 새 생명을 낳아 보듬는 교회 | 황광용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2 ·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 박지운



영락지금 15 · 실패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자 은혜
| 우대권, 목진경, 오승현

한 권의 묵상 18 · 『천국의 열쇠』 고전을 읽는 즐거움 | 김충섭

너 괜찮아? 21 ·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함승수



해외선교 24 · 프랑스 리옹 한인교회 | 고금자
27 · 어린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 김명환



문화광장 30 ·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
2018 북적북적 독서감상문 공모전 심사결과

38 · 1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39 · 사춘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서은주
중등부 제자를 위한 기도문 | 홍정임

42 · 하나님 사역을 위한 '거룩한 수고' | 박진현

45 · 사랑의 편지에 담긴 헌금 | 문영환

46 · 영락교회의 어느 이야기 | 정천우



이웃사랑 48 · 성찬 포도주 | 이영희

교회소식 50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등

58 ·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59 · 은퇴 향촌직 / 이임 교역자

61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 독자의견

62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63 · 새가족 환영

야곱의 우물가 64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컬러링

화보 65 · 2018일터소명컨퍼런스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김운성 위임목사

201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밝아왔다’는 표현을 새해 첫날 사용하는 것은 새해 첫 태양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면서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아왔다’는 표현에는 어딘가 모르게 묵은해는 어두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 개운치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지나간 해보다 새해에 더 보람 있는 삶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묵은해를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이 없었다면 2019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를 위한 노력과 은혜가 없었다면, 새해를 위한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영락교회가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의 바탕 위에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부부생활

을 닮았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서 화평하고 행복할 때, 생명이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는 이제부터 생명을 많이 낳아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은 성경적 교회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을 바탕으로 교회의 태동과 성장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다락방에 모인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을 언급하는데, 이 모임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이들이 교회인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인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도했고, 수가 늘어 부흥했습니다. 전도하여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부흥의 원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도 전도하여 부흥하는 원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교회는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주 모였고,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했습니다. 깊이 교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또 양육과 교제의 바탕 위에서 예루살렘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돋는 구체적 섬김을 펼쳤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확산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결속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섬김, 나눔, 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도들과 밀착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락복지재단을 통한 섬김 외에도 성도들의 일상이 섬김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반드시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교회는 이런 사역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이방지역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써 땅끝 선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교회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과정에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분들은 뜨거웠고, 살아 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을 많이 낳읍시다. 새해에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적어도 각자가 세 명 이상은 전도하겠다는 각오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영락교회가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보다 강력한 부흥의 방식은 지금 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기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납시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가 되도록 꼭 기억하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만남**

일상에서 제자답게

생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기독경조인

“‘이것이 제자답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 ‘제자의 삶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제자라는 것이 어렵지만 일상에서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자’입니다. ……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이웃들의 가장 기쁜 순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기독경조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나지막하게읊조리듯 고백한 말이다. 작은 일상에서도 영원을 바라보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장례절차를 천국환송식이라고 하는 기독경조인과 기독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과사를 겪는다지만 화와 복을 겪는 ‘방식’과 ‘길’이 전혀 다른 이유다. 일상이 곧 전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해온 ‘일상에서 제자답게’ 특별 기획을 이달 ‘기독경조인 좌담회’를 끝으로 마감한다.

취재 김희정 객원기자 사회 박근우 객원기자 사진 조덕일 객원기자



앞줄 왼쪽부터 김명철 장로(2018년 경조부장), 최정화 권사(서대문·은평교구), 이영희 권사(강북·도봉교구), 채복희 권사(성남·분당교구)
뒷줄 왼쪽부터 김희정 권사(강남교구), 김순옥 권사(성남·분당교구), 박근우 집사(마포·영등포교구)

사회 박근우 집사 : 많은 봉사 중에 경조부에서 봉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순옥 권사 :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천국 가실 때 경조부에서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복희 권사 : 저의 경우는 2008년도에 성남·분당 교구와 용인·화성 교구가 갈라지게 되면서 상례부의 봉사자가 많이 부족했던 것과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례부원들이 은혜롭게 잘 대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릴 겸 시간이 되면 봉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권사 : 직장 생활중에 봉사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세상일은 많이 했으니 어려운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상례부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보람 있을 것이다”라는 선배 권사님의 조언을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화 권사 : 교회 생활 하면서 은혜도 많이 되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서 봉사 하려고 40대에 마음 먹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상

례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명철 장로 : 제가 상례부를 지원한 이유는 위로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곳이 상례부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환송 예배까지 치르는 동안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에 전도도 하려고 지원했습니다.

사회 : 봉사를 하시면서 가슴 아팠던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최정화 권사 : 제가 봉사 하던 중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4남매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은 큰 아들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중 둘째 동생이 교통사고로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충격을 받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님을 전도하여 잘 모시다가 어머님이 병상 세례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가니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달랑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슬픔에 식구들은 아무런 대비가 없어 자연장을 위해 국화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맥의 경제 사정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하니 조원끼리 서로 조금씩 ‘십시오일반’하여 아침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조원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

습니다. 다행히 식사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그 집의 큰 아들은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다고 그 와중에 마음을 달래고 그 가정의 믿지 않는 딸과 사위까지 고마움을 표현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댁의 믿지 않는 딸과 사위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 말씀 중에 조원들이 ‘십시오일반’하여 아침 밥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교회 차원에서가 아니고 조원들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최정화 권사 : 가끔 조원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일들은 돋는다는 자세가 돋보입니다.



이영희 권사 : 제가 경험한 일은 자녀들은 교회에 등록이 돼 있지만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묘보다 영락동산으로 가기로 결정되고 경황이 없는 가족에게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절차를 밟아드리면,

방문하시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전부 감동받고 “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해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참 보람됩니다.

채복희 권사 : 저희 구역에서 상이 났을 때입니다. 상례를 처음 당할 때는 특히 당황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죠. 장례를 잘 마치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례식을 치른 지 한참이 지나도 저만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상례부가 하는 일이고 큰 보람입니다.



김순옥 권사 : 저의 구역인데 부모님만 믿으시고 자녀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본인 이외 식구 중 아무도 안 믿고 집에서 돌아가신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다급한 연락을 받고 와 보니 방에 그대로 시신이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시신을 운구하는 일부터 도왔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도맡아 도와드렸는데 감동받은 딸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둘째딸이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락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집의 큰 딸은 전혀 전도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큰 딸마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상례부원으로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회 : 장로님께서 상례부의 봉사 범위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철 장로 :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좋은 조건 중의 하나가 공원 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과 무의탁 노인까지 여러



여러 교우들이 유가족과 함께 영락동산에서 (故)박기호 안수집사 추도예배를 드리는 모습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도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의탁 노인들은 상례위원들이 장례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장례 후의 일까지 '십시오일반' 돋기도 하고, 무연고일 경우 행정적으로 한 달을 기다리게 돼 있는데 연락을 받으면 시신을 인도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봉사를 합니다.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할 때 차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봉사합니다. 상례부원의 가족도 모두 상례부원인 셈이죠.

사회 : 일상생활에서 자신은 어떻게 제자답게 신앙과 봉사를 연결시켜 실천하고 계시나요?

김순옥 권사 : 제자답게 산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례부 봉사를 통해서 보이는 내 모습을 '예수님

이 기쁘게 받아 주시겠지?'하고 생각합니다. 상이 나면 새벽에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복희 권사 : 제자답게 산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로서 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상례부를 통해서 새벽마다 분주히 움직이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같이 위로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자다운 삶'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희 권사 :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은 상이 안 났으면'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면 제일 우선으로 달려가서 참석하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것이 제자답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마음이 중심에 서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상례부원들을 볼 때 ‘제자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 떨 때는 새벽에 가야 하는데 못 일어날까봐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래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최정화 권사 : 제자라는 것이 어렵지만 일상에서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자’ 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손해 보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하자’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쁜 말과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사용하자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김명철 장로 : 경조부에 는 200여 명의 회원이 계십니다. 경조부는 예식부와 상례부로 나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고 소천하는 그날 위로로

함께합니다. 예식을 담당하는 부원들도 결혼을 통해 새 가족이 된 분들을 환영하고 돋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경조부에서 봉사하고 도와주셔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 경조부의 부원이 아닌 개인으로 죽음을 보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김순옥 권사 : 장례를 치르다 ‘아! 이게 내 모습이 되겠구나. 나도 이 길을 가겠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복희 권사 : 어떤 목사님께서 영정 사진을 보시며 사진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생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 살아야겠구나’ 다짐도 해봅니다.

이영희 권사 : 저는 ‘호스피스 교육’도 받았습니다. 관 체험을 하며 무서울 줄 알았는데 참 아득했습니다. 그때 불러주던 성도들의 ‘시온성’ 합창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갈 때 나를 더 이상 보지 못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며 당부 합니다.

사회 : 경조부 봉사자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경조부의 봉사자들을 보니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남**

본 좌담회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분들
김화숙 집사, 안진영 집사, 임광철 집사, 이진영 청년

신년특집 //

거룩한
공교회와
새 생명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새 생명을 낳아 보듬는 교회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새 생명을 낳아 보듬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새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집안의 온 식구들이 아기 때문에 웃고, 울고, 걱정하고 행복해합니다. 부모님은 아기를 위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새 생명을 낳아 보듬고, 길러내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역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양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더욱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황광용 목사
새가족부
종로·성북교구
(2018년 기준)



우리 영락교회 역시 날이 갈수록 새 생명들 곧 새 가족들이 많아지고, 함께 성장하는 생명의 보금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가족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새가족부는 새 생명들을 맞이하고, 교회의 정착과 신앙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가족들을 낳고, 보듬는 일은 새가족부에 속한 봉사자들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부 봉사자들은 200여 명 남짓입니다. 하지만 새 가족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인, 여러분들을 더욱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새 가족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당연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뵙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이어도,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접하기에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은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수한 생각을 합니다. 고민도 하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닐지, 혹은 신앙생

활을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표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당연히 이것이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싶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미소에서 묻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된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가족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서 눈물이 나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감격이 느껴지는 미소를 짓는 분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 질수록, 새 가족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을 결단하는 것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새 가족을 맞이하고 섬기는 가장 귀한 원리는, 성도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면인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워낙 많으시기에, 새 가족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뵙는 분인데, 이 분이 10년을 다니신 분인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처음 참석하게 되면 너무 어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너무 좋지요. 우리는 영화관에서 옆 자리에 앉은 분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난 그 누군가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른 척해도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두 주님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만약 주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혹시 물건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거나 무엇인가를 물어보려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 만난 그분을 향해 미소를 짓고, 친절히 대하는 것이 생명을 보듬는 귀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생명을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귀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새가족부에서 함께 섬기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직접 봉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복음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친절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역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안남**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매일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때로는 모임의 마침표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중간의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는다고 하시며 주문처럼 외우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의 비판은 과하다 생각하지만 형식화되고 바리새적인 종교인으로의 위험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비판입니다.



박지운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선교부
(2018년 기준)

비단 주기도문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매주 또 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기도인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신조’, 즉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조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신경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이 지면에서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12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신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제2신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심판자로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제7신조까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제8신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지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고백은 단 한 문장 ‘나는 성령을 믿으며’에 그칩니다. 여러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며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고백, 즉 제8신조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며 고백하십니까? 이전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였는데, 공적인 회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채 그저 주문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간혹가다 믿지 않는 분들이 “너 교회 믿나?”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나?”도 아니고 “교회 다니나?”도 아닌 그 중간 질문이지요. 교회를 믿는다는 질문 자체가 성립합니까? 공교회를 믿는다고 매 주일 외우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인가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집

니다.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러한 오해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천주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Catholicos(보편적)’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서술하면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며 또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적이거나 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역성을 띠고 있기에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교회나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등이 이러한 지역교회입니다. 물론 영락교회도 지역교회이지요. 서울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세계에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세려면 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교회를 정의내릴 때는 이런 지역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베소서에는 성경의 교회론이 잘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엡 1:23)

즉,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가톨릭, 즉 보편교회입니다. 지역교회나 개체교회는 지역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에 의해서도, 지도자에 의해서도, 날씨나 토종문화에 의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름이 없고 보편적이라는 것이지요.

즉, 가톨릭이라는 말은 본래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속성 자체를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 그런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이 오직 단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천주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하며 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교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지만, 교파가 이리저리 나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것도 아니고, 개인들의 집합체만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이사를 가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새벽기도는 주변 교회에서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보편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이나

정치적인 차별이나 경제적인 차별 등, 그 어떤 차별도 보편교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윤리적인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속한 거룩함이 아닌 존재에 속한 거룩함을 의미하지요. 교회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영락교회는 거룩합니까? 그렇지요. 그 근거는 영락교회가 행하는 수많은 선교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 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도 하지만,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담보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갈릴리 시골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계 역사와 함께 계속하여 자라왔습니다. 이 자라남은 지역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일어나지만, 우리의 목표는 지역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는 세포로서 자라나며 번식 합시다.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 숨 쉬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날**



양현욱 교사

실패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자 은혜

베드로부 교사 양현욱

영락교회의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소중한 생각을 들어보는 <영락 지금>! 이번 호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며 느낄 소회가 남다를 부서의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삶의 첫 관문을 위해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베드로부, 그리고 그 소중한 영락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감싸주며 봉사하는 베드로부 교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유승현 기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물여덟 살로 대학부 38기, 직장생활 3년 차, 베드로부 21기였으며 베드로부 교사로 섬긴지는 1년 차인 나를 풋풋한 새내기 교사 양현욱이라고 합니다.

소개가 활기차서 좋네요(웃음). 베드로부는 어떤 부서인가요?

인생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려운 시기에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끔 서로가 힘을 실어주는 부서입니다. 무엇보다 재수, 삼수, N수를 겪은 선배들이 두텁게 있어서 다른 부서와는 달리 선후배 간 내리사랑이 가득가득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베드로부를 섬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재수를 했었는데, 길지 않은 삶을 돌아봤을 때 재수 시절에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컸음을 다시 돌이켜보고



양현우 교사(오른쪽)와 우대권 편집위원(왼쪽)이 인터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기를 떠올리며 베드로부에 종종 기웃거리곤 했는데, 그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실패가 아닌 또 하나의 은혜였음을 말로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싶어서 섬기게 됐습니다. 재수를 어렵게 준비했던 저였기에 힘들 친구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베드로부의 구성원과 연령대가 비슷한 대학부에서도 리더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베드로부 섬김은 대학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학부의 리더는 또래의 벗님들과 말씀을 주도적으로 나누가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부의 리더는 주도적으로 나누려 하기보다는 묵묵히 벗님들의 삶을 들어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만 듣고 공부만 했던 벗님들이 속에 품고 있는 응어리를 마음껏 털어놓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베드로부에서뿐이니까요. 그래서 성경공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잊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부에서 교사나 학생회로 섬길 때, 나누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저 역시 재수를 시작했을 때, 세상을 잃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주님도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했고, 원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베드로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벗님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베드로부와 함께하며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친구들을 옆에서 볼 때, 소름 둘을 정도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희 조에 있었던 두 명의 재수생 벗님들이 처음 베드로부에



왔을 때와 달리 훨씬 더 밝아지고 잘 웃는 것을 보며, 또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부를 섬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오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랑을 나눠줄 준비는 되었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베드로부를 알지 못해서, 용기를 내기 어려워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입시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면 신앙을 더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베드로부의 문을 두드려주면 좋을 텐데, 그 어려운 마음을 품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릴 때가 참 아쉽습니다. 또 내년이면 베드로부가 태어난 지 30주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교회 내에서는 작고 생소한 부서로 인식될 때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수나 삼수 혹은 새롭게 대학입시를 결심한 벗님들이 주저함 없이 베드로부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회 내에서도 일반 신도들이 저희 부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부는 사랑이 넘치는 부서임에도 나눠주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새로이 나아오는 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도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혹은 청년부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벗님들은 당연히 베드로부에 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이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남』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도 중요한 순간을 앞에 둔 독자들이 계실거에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베드로부에서 들었던 말씀 중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 또 그렇게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기회이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삶에 있어서 입시만이 인생의 고난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고난의 시간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의 고난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천국의 열쇠』 고전을 읽는 즐거움



천국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일까?

의사이자 문학가인 A.J. 크로닌의 대표작으로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천국의 열쇠』는 한 천주교 신부가 교단 내부의 배타적이고 권위적 문화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이야기이다. 저자 아취볼드 조셉 크로닌 박사가 이 책에서 표현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19)



김충섭 목사
안양·수원교구
소그룹, 상담부
(2018년 기준)

책에서는 인간의 본 모습을 대립된 양상의 두 인간형의 축소된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부족할 것 없는 가정에서 성장해 편한 길을 걸어가며, 순탄하게 고위직에 올라앉는 안셀름 밀리 신부와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가정파탄의 고통 속에서 눈뜨는 자야를 누르며 몸부림쳐 야 했고, 뇌리에 박혀 있는 참 인간상의 추구로 고뇌를 거듭하던 치점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게 무신론자이지만 의롭게 죽어간 윌리 탈록 의사(주인공 치점의 친구) 역시 기억해야 할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이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에 순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았고 누구보다 의롭게 죽어가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일까?

저자는 해답까지 정의 내리려 하지 않는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천국에 이르는 열쇠는 읽는 우리가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으로 쫓기듯 선교활동을 떠나게 되는데…

종교 문제로 갈등하던 부모를 사고로 동시에 잃고, 먼 친척집에 맡겨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치점 신부는 연민의 정을 품어오던 노라 때문에 사제가 되려던 결심에 갈등을 겪지만, 사생아를 출산한 노라의 자살을 계기로 자신의 결심에 확고한 종지부를 찍는다. 이것은 단지, 치점 신부의 종교로의 회귀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단정된 일이 아니며,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이루어졌다. 조금은 도전적인 성향의 치점 신부는 첫 부임지에서 키자 신부와 피츠 제랄드 신부 등과 여러 갈등을 겪고, 쫓기듯 선교활동을 떠난 중국은 그야말로 인간의 내면 안팎으로 포교활동의 장으로서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 전쟁과 전염병까지 겹쳐 치점 신부의 선교활동은 점점 난항의 높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치점 신부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일생을 이곳에 묻겠다는 결심으로 중국 선교지에서 36년간 버텨낸다. 36년 사역 이후 노년에 만난 어릴 적 두 친구, 안셀름 밀리 주교의 비대한 풍채와 속세에 찌든 듯한 치점 신부의 외소한 모습, 즉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치고 희생한 치점 신부의 늙은 얼굴은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중국에서 귀국한 치점 신부는 뼈만 앙상히 남아 울고 있는, 죽은 노라의 소생 앤드류를 거두며, 이제는 그를 위해 여생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당회 독서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하는 모습





백석의 성전에 오르는 계단, 천국의 계단을 연상케 한다 | 사진 유승현 기자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열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천국의 열쇠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책의 주인공 치점 신부는 "누구나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세상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걸웃뿐 아니라 속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치점 신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을 닮아 가기를 소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교리에서 맞서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솔직한 심성과 편협하지 않은 사랑과 성자적 실천의지에 감동되었다.

치점 신부는 자신과 자기 나라만을 위한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한 진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성당에서 보호하고 있던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위협이 닥치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대포를 부수려 가는 데 동참하게 되고 이 일로 자신의 신앙적 결의가 무너진 데 대해 치점 신부는 심적으로 무척 괴로워하며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여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치점 신부는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런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해 더욱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천국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천국은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있다. 천국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어디에나 있다…", "내 한 평생의 보고서는 하나님께 내겠소!"라는 본문 중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도전이자 질문으로 던진다.

전체 605쪽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이 책을 펴는 순간, 결론이 궁금해서 책장을 쉽게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천국의 열쇠』를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남**



촘촘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토요일 저녁 SNS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 중인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이 한 문장이 나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 준다. 나의 안부를 묻고 있으나, ‘자신은 잘 지내고 있지 못한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연락임에 틀림이 없다.

현지 시간 새벽 3시. 나이는 23세, 스포츠 경제학 전공, 그것도 장학생으로 유학 중인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씩씩한 남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바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기보다는 청년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동네이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나는 그저 열심히 듣고 있었다. 듣고 있다 보니 유학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고 쓸쓸한 시간들의 연속일지 상상이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잘하고 있구나. 힘들고 쓸쓸했을 텐데, 정말 잘하고 있구나.”

두 남자(?)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몰려왔다. 묵직한 침묵 속에 애통함이 느껴왔다.

제자가 울먹이며 조용히 나에게 되물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함승수 교수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사무국장

“물론이지. 정말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어깨 하나 내주었는데 아이가 너무 고마워해서 내가 더 당황스러웠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내친김에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고급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사라고 반 강제하여, 결국 약속을 받아내고 전화를 끊었다.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제자가 대학에 진학했다고 인사하러 학교로 찾아왔다.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수련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은혜 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던 대견한 제자였다.

제자 손에 직접 쓴 9장짜리 편지가 들려 있었다. 유학 시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여름 수련회 중 저녁식사하면서 아이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났다. 아이는 참 많이 울었고, 나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작디 작은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말이다. 편지에 보니 그 시간이 자신을 살렸다고 한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중에 아이스크림 얹어먹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나에게 아이스크림 사야 할 제자가 늘었다. 어깨를 잠깐 내어주니 아이스크림 사줄 제자들이 늘었다.

영락의 둘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이제 장성해 내가 결혼식 주례한 친구들도 제법 있을 정도니 세월이 참 빠르다면 빠르다 싶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동화(?) 같은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의 자녀들, 정말 귀하고 귀한 친구들이다.

귀한 아이들과 비교적 잘 지낸 듯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아이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컨대, 나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나랑은 너무 다른 외계인 같은 아이들이다. 나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의 대화, 언어, 문화 그 어느 것도 내가 소화하기에 쉬운 것이 없다. 진실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목사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숭고한 사명감에 아이들을 위해 나를 낮춘 것도 더더욱 아니다. 내 앞의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니 그저 작은 어깨를 내어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야자가 끝난 시간 찾아가 정크 푸드로 가득한 야식을 먹고, 함께 한강을 거닐고, 때로는 내 차에 태워 한강 드라이브를 가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화수분이 되었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거울 속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것도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확신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는 왜곡되고 빠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마 11:16~17)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세대처럼 반응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피리를 불어줘도 노래하지 않는 세대가 아닌지 한탄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안다. 섬기고 사랑해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슬피 울어도 애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다.

“이 아이들이 춤출 수 있도록 노래하고 있나요?”

“아이들에게 정답이 적힌 장황한 설교가 아니라 작은 어



깨내어주고 있나요?”

어느 고등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설교 전 인근 교회에서 오카리나 연주팀이 와서 특송을 했다. 예배 전 오카리나 연주팀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채플을 함께 드렸다. 설교 전 오카리나 연주는 조금 길었지만 훌륭한 연주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지겨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예배 후 오카리나 연주팀이 ‘오늘 학원선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 입장에서 학원선교를 잘 감당했다는 걸까?’

그분들의 마음과 정성, 선교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이 특송은 너무 공급자(?) 중심의 자기만족으로 보였다. 노래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가 춤출 수 없도록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생겼다.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어른들의 노래에 이 아이들 보고 반응하리라 무

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 울지 않는다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탄하기 앞서 아이들이 통곡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울어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월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그리스도인의 이중 언어(bilingual)’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열왕기 하 18~19장에 유다가 항복하도록 회유하는 앗시리아 중재인과 협상을 위해 ‘공적인 언어(public language)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과 성벽 뒤와 공동체 안팎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공동체적 언어(community language)인 히브리어’를 통해 대화하는 사례를 들며 그리스도인의 이중 언어 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거대 담론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중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상의 이야기이다. 그들을 지도하는 부모, 교사, 교역자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호존중과 섬김, 친절의 태도를 통한 언어(nonverbal communication)이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Teaching about God)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Experience God) 돋는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영락의 뜰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귀한 왕의 자녀들이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고, 어깨를 내어주어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섬기고 계실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좋다. 기대가 된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작은 어깨 하나 내어주고 계실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참 감사하다.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영락의 공동체를 기대한다.” **만날**

프랑스 리옹 한인교회

고금자 선교사
리옹 한인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한 해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천만 명을 넘은 지가 오래되었고,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몽마르트,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거리의 아티스트들, 서로 여행자들임을 알리며 감탄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나라. 대부분은 여기까지 생각하며 프랑스를 동경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또한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존 칼빈이 태어난 나라이고 『기독교 강요』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개혁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1905년 정교분리가 되면서 급속한 세속화가 되어버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사고가 깊이 깔려 있고, 공원만하더라도 프랑스 정원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자르고 깎아서 만듭니다. 지금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이미 그들의 부모님 세대 때부터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학창시절부터 히피문화에 도취되어 이미 교회를 떠났고,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성경의 역사나 내용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과연 천주교 나라가 맞는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리옹 한인교회에 나오는 프랑스인 남편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불어로 통역을 하면 전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



리옹 한인교회 새가족환영회



교회 앞 교우들과 함께

함이 누구인지 모세가 왜 그랬는지 등등.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세례를 받고 신양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신기하다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마다 보니 프랑스는 재복음화가 시급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천주교인이 50%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꽤 되었으며, 80%였던 천주교인들 중 30%는 무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종교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이슬람 10%, 개신교는 2.6%만이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 2.6%중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다시 그 중의 8%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슬람교가 10%이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재복음화가 시급한 나라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슬람 선교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한인 교회들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북유럽, 미국, 영국, 호주 교회들이 프랑스 교회와 선교 협력을 통하여 현지 교회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불어권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파송 받아 지금까지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생 교회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속하는 유학생들의 구성도 어학, 대학, 대학원, 교환학생, 연구원, 워킹 휴리데이 등 다양하고,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학생들이 리옹으로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학 과정과 워킹 휴리데이 목적으로 온 청년들은 학기마다 떠나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매번 새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한 혼합가정이 10가정 이상 되어 예배드릴 때마다 불어 통역을 하고 있고, 한인가정도 거의 비슷한 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젊은 가정들이어서 자녀들은 거의 영유아부에 속하는데, 20명이 조금 넘고, 지난주에도 한 명이 더 출생했습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청년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화요일에는



종교개혁 기념 벽화 앞에서 교우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여전도회 모임을 갖고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며, 수요일에는 캠퍼스 사역으로 학교로 나가 학생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요일에는 주로 가정들을 만나는 심방을 하고, 금요일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오전 10시 반에 저희 한인교회가, 오후 2시 반에는 카메룬 교회가, 오후 5시에는 프랑스 교회가 예배를 드려 세 교회 연합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기 예배 때는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2월 24일 성탄전야 예배도 함께 드리며, 내년 사순절 기간인 3월 17일 주일예배도 함께 드리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교회가 한 교회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프랑스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면 교회를 빚겨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친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 자녀들이 미래의 선교사들이기에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테러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정치적 혼란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지를 바라보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한 선교현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이루어 나아가기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을 모읍니다. 영락 성도들께서 프랑스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안전함 가운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남**

어린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김명환 목사

영락교회 고등부·호산나찬양대 역임
미주한인남침례교총회 파송 선교사
현 캄보디아 장로교신학대학 교회음악과 교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 21:16)

위 말씀은 가만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Thou”(당신이/ 흄정역)가 주어로 되어 있어 원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곧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요.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 악보도 볼 줄 모르고, 필요한 악기 도 없고, 가르칠 음악선생님도 없는 아이들이 과연 온전한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2001년 분당 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담임목사)에서 시작된 ‘전국 어린이 찬송가피아노콩쿠르’가 1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약 25개 도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찬양축제’로 매년 열리게 된 것은 위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그 교회 지휘자로, 찬양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제가 출판한 어린이 찬송가피아노교본을 사용해서 어린이 찬송가피아노콩쿠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¹ 찬양을 온전케 하려면 무엇보다 음악교육이 필수적인데 피아노는 그 목적에 가장 알맞은 악기입니다.

첫 대회에 전국에서 60명의 아이들이 왔고 대회는 점점 커

1. 이 악보는 약 10여년 전부터 새찬양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Unity in Diversit



인도차이나 선교대회에서 찬양하는 호산나 아이들

져 2004년 미국으로, 2007년 중국으로 건너가며 모든 악기와 성악을 포함한 어린이 찬양축제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으로 퍼지게 됐으며, 2012년도에는 당시 미국에서 신학공부 및 교회음악 박사과정을 마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어린이 찬양을 온전케 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믿었지만, 막상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어린이 찬양축제를 개최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4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홀을 빌려놓고 “주여, 몇 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찬양을 회복시키시려면 먼저 어린이 찬양부터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첫 대회 때부터 큰일을 행하셨고, 모두 120여 명의 참가자가 왔는데 그중에는 불신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음악회장이 청중들로 가득 찼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고, 그 대회는 이제 프놈펜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어린이 청소년 찬양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특별찬양팀과 참가자를 합하여 최대 약 200명까지 출연했고, 시엠립, 캄eroon 등 주요 도시들에서도 열리게 됐으며, 2018년에는 쌀 생산으로 유명한 바탐방까지 모두 네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캄보디아,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약 10개국 아이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프놈펜의 호산나학교에서 앙상블과 합창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약 20년 전 한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로, 원래는 극빈자들을 위한 학교였으나 이제는 영어, 컴퓨터, 음악, 일본어, 태권도 등을 방과 후 수업으로 가르쳐 명문이 된 학교로 약 500명의 캄보디아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호산나 앙상블은 캄보디아 최초의 중·고등학교 기악 앙상블로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년 전 독지가의 후원으로 팀파니를 구입하여 작은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합니다. 저희 학생들



브라질의 찬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은 찬양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가서 연주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부산수영로교회 성도들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약 20일간 공연 및 간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중 두 학생은 현재 승실대(영문과)와 고신대(성악과)에서 차세대 캄보디아 기독교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판 “You’ve God Talent” 텔레비전쇼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가 그 위상을 높인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저까지 TV에 나와 한국 선생님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쳐줘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한국의 위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대회가 프놈펜에서 열렸고 약 500여 명의 선교사가 모여 큰 성황을 이루었는데, 개회식 때 저희 학생들이 이 대회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칸타타 “인도차이나여 일어나라!”라는 곡을 초연하여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축복과 격려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한국의 합동, 통합, 고신 등 여러 장로교단이 연합으로 세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CPTI)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캄보디아의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도, 남미,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일주일 찬양신학집중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는 제게 찬양신학을 배운 아프리카 제자가 케냐에서 약 2,100명이 참가한 찬양축제를 열어 저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이며 교회음악 박사인 아내(최미야 선교사)는 저의 찬양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스턴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동딸(최한나, 그래픽디자이너)은 찬양사역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 홈피 제작 등으로 역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심히 부족한 제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카톡으로 모여 늘 기도해주시는 영락교회 호산나 단원들께 특별히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날**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

2018 북적북적 독서감상문 공모전 심사결과



중등부 최우수상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죠? 『청진기』를 읽고



오수진
보성여자중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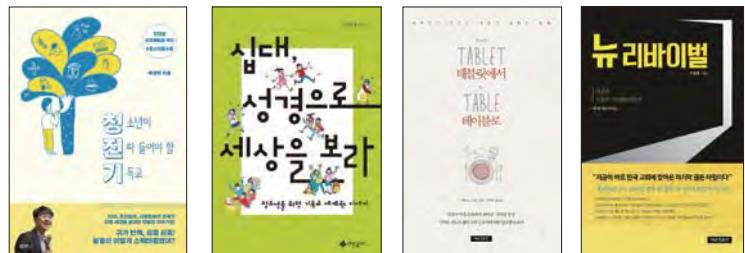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독후감을 써보려고 해요. 저의 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셨지만, 어머니께서는 기독교 교인이셨기에 저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권장하셨죠.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새 저는 고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회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였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라는 입에 발린 소리뿐이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라던가 제가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었죠. 그 뒤로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에 가지 않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간다고 한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를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에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을 알고, 당당히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나의 가치관과 사상을 바꿔보고 싶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어요. ‘청진기’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인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는 성인도 교인도 아닌 평범한 ‘청소년’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 즉 관점을 청소년에게 맞추어야 할 텐데, 어른이신 목사님이 과연 나와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책을 펴고 나서 몇 장 넘기고 나니, ‘추천의 글’이라는 게 나왔어요. “곽상학 목사님은 눈을 마주 보며 진지하게 대답해 주려는 진정성이 가득합니다” “곽상학 목사님은 언제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잘 전달하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북적북적 독서감상문 공모전은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를 주제로, “신앙의 대잇기: 신앙의 언어가 공유되지 않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를 부제로 제시했다.



함께 읽은 책은 청소년(중·고등학

생)과 일반(대학·청년·장년) 공통 도서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청소년 부문 도서 〈청진기〉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라〉, 일반 부문 도서 〈뉴 리바이벌〉 등 모두 4종으로, 모두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복음과 믿음의 문제를 주제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보성여자중·고등학교, 대광중·고등학교,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유헬스고등학교 등 모두 7개 학교로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덕분에 청소년 부문 응모작이 풍성해, 고등학생 359편, 중학생 148편 등 총 522편이 들어왔고, 일반 부문에 15편이 응모되었다. 이 가운데 총 28명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16일(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시간에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12월 9일까지 베다니광장에 전시한다.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최우수	오수진(보성)	지송근(유헬스)	안세진(청년부)
우수	주예은(영락) 하유빈(보성) 임유진(보성)	김소현(고등부) 안태현(대광) 양세한(대광) 심한준(대광) 홍민기(영락)	이영철(강북·도봉)
장려	정혜인(보성) 김에스더(보성) 정다은(영락) 신혜인(보성) 정윤주(보성)	이승후(대광) 김민성(대광) 최자성(대광) 이준성(대광) 최시호(보성) 송한결(대광) 김민우(고등부) 김제인(유헬스) 백재원(보성) 최석륜(대광)	김윤아(대학부)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문가입니다”였어요. 이 책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 후기 내용들이 나에게 소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잔뜩 양팔에 기대를 안고 본 내용을 읽었어요.

“~두곤 했지요” “~라고 해요” “~하죠”라는 식의 존칭어는 아주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말투만으로도 목사님(작가님)이 나를 존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움찔거렸어요. 책을 넘기다 빽 터진 파트 구절은, “가룟 유다? 짱깨 유다!”라는 나노 파트 이름이었어요. 약간의 위트와

익살스러움이 묻어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다 해소하고 싶었던 저였기에, 평소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만드셨을까? 라는 게 아닐까 조금 예상해봤어요. 저 또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선 악과 규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리 부여하신 엄청난 자유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선악과는 아담에게 행복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단순

하고 유일한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라는 목사님(작가)의 말씀은 저의 궁금증을 풀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악’을 문빗장(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에 빗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문빗장, 즉 악이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악의 유혹과 속삭임(문빗장)을 이겨내는 것(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의 유혹에 걸려들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을 때 하나님께 사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극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토라진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법도 해요.

또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함의 뜻이에요. ‘하나님’, ‘하느님’, ‘여호와’… 등등 많은 존함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뜻과 차이를 몰랐거든요.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의 ‘하느님’, ‘하나님’ 등등 단어의 뜻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뜻을 알고 나니, 문득 든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느님’, ‘하나님’ 이러한 존함을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게 하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것은 동성애가 왜 안 되지?

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BL(게이) 만화를 (친구의 추천으로) 즐겨봤었기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금지시켰을까, 왜 죄라고 칭하는 걸까? 생각했어요. “동성애는 불법이야” “도덕의 윤리에 어긋나” “동성애는 더러운 짓이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이 동성애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박는 것처럼 보여 화가 났었어요. 동성애자는 훈련을 받아서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속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듯 동성애에 호의적이었던 저였기에 책의 해당 부분을 바로 읽었어요. 알고 보니 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속해있어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속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저의 생각을 바꿔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제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질병이나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이라는 내용으로 동성애가 죄라며 동성애를 비판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제 생각을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동성애에 관해 이것 저것 찾아보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세계관 전쟁)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다행히도 저는 동성애가 죄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자,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등도 인정하게 되는 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과 사회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또한 현재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하늘로 치솟을 것이에요. 또한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동성애가 많아지고 당당해진다면 평범한 이성애자도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임신율이 낮아지고 당연히 저출산 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겠죠. 또한 에이즈의 96% 정도가 성문제로 인한 질병인데 그 대부분의 퍼센트에 동성애 간의 항문성교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덧붙여,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쾌락에 미쳐 병(에이즈)에 걸렸는데, 전쟁에 총알받이로 쓰이셨던 분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이 외에 여러 까닭으로 저는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독후감을 끝내기 전에 이 책이 전체적

으로 좋았던 이유를 써보려고 해요.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이 책을 통해 궁금증이 풀리고 제 가치관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계의 규율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책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닌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되어서에요.

제 자신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게 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되고, 누구를 중오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분노를 삭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진심을 담아 과상학 목사(작가)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최우수상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라』를 읽고

이 책은 벚꽃잎이 떨어지는 따뜻한 봄부터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해지는 추운 겨울까지 10대들의 삶을 각 계절별로 나눠 이야기하고 있다. ‘새 학기 친구를 추가하세요’부터 ‘꿈의 시상식’까지 그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내용 중에서 여름의 ‘미션 원정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미래에 간호사로서 해외 의료선교를 꿈꾸는 나에

지송근
영락유헬스고등학교 3학년



게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책에서는 선교를 ‘가는 것(going)’이 아니라 ‘사는 것(doing)’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팀을 꾸리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성인이 되면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사는 것’이란 정의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금방 풀렸다. 책은 ‘선교’라는 말에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서술한다. 즉, 선교는 내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신 우리의 사명은 뭘까? 이 해답도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전도’이다. 선교지를 직접 밟아보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아오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선교를 하는 선교사인 셈이다.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에 빠졌다. 그때에도 전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한 예로 매일 아침에 친구를 만나면 “교회 가자!”라고 소리쳤고 욕을 먹기 일쑤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간청했고 그 친구는 결국 교회에 딱 한 번 오게 되었다.

이 친구 외에도 전도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도 주고 밥도 사주면서 간신히 설득하였다. 전도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15명 정도를 교회로 인도한 것 같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과 싸워야 했다. 교회 오는 조건

으로 선물 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고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내게 주신 사명이 전도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싸워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입을 열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 ‘다른 세대’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 계신지 모르겠다느니 기도 응답이 없다든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등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세습에 대한 교회에 좋지 않은 시선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일명 ‘Sunday Christian’이 주변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만 간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한국 사회에 탈 종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신앙의 언어가 공유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정말로 올지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스트푸드처럼 쉽고 빠르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꺼비집을 짓듯이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를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정성과 밥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수고들이 모여 비로소 완성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교지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자신

하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에 반성하게 된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노래 가사처럼 이제부터 사랑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다니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복음

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자!

청년부 최우수상

식탁의 교제 공동체로 돌아가기 『태블릿에서 테이블로』를 읽고

오늘날 공동체라는 말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는 드문 것 같다. 개인주의와 인스턴트적 사고가 팽배한 때에 저자는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관계와 공동체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회인 우리에게 식탁 공동체로 모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가 많았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식당에서 혼밥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가끔 지나가는 아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 하지만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때에 저자는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부부와 가족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TV를 보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고 서로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국내 한 공동체에서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한



안세진
청년부

적이 있었다. 하루에 세 번의 기도 시간과 공동 일과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기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 불편하게 여겨졌다.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나 자신이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 공동체에서의 식탁이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임과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식탁은 남과 마주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부대끼면서 나 자신의 부족한 면들이 다듬어져서 새로운 나 자신이 탄생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리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혼자 있으면 약한 부분을 단련시

키기보다 내버려 두기가 쉽다. 다른 사람들과 맞추기 위해 빼걱거리면서 자꾸 움직여 줘야 근육도 생기고 나도 튼튼해져 가고 더불어 공동체도 세워져 간다. 넘어지고 깨지는 상처가 필수로 따라붙는다고 해도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들어서 다들 가분수가 되어 있다. 머리가 너무 커져 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있는지 의문일 때가 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만나는 자체 그 속은 너무나 커다란 매너리즘과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는 한다.

교회는 성례적인 식탁보다 관계적으로 적절한 식탁을 차려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가는 것은 교회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과 양적 성장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과연 교회에서 나와 같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물을 때 손꼽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교회 사역의 분주함과 수많은 프로그램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봄이 옳을 듯싶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먹어라’이고 마지막 명령은 ‘마시라’이다. 이 두 명령 사이에 있는 식탁에는 삶이라는 식사가 차려져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마신다. 식탁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동네로 세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 앉아서 인쇄된

규정과 무미건조한 명령만 받아들이는 자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제자로 성장한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일부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마치 유년시절에 동네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으렴”하는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과 같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모인 집단이다. 서로의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대도 다르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세대 차이와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 우리의 신앙은 전수돼야 하고 이는 계승 발전돼야 한다.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본능적인 소리다. 배고픔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식사는 메시지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집으로 식사하러 오라는 초청이다. 우리의 삶은 이 잔치로 가는 여행이다. 우리는 짧은 요절이나 손 안의 기기가 아니라 곳곳에서 열리는 잔치를 통해 그곳에 도착한다. 예수님은 일회용 식사권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나’이자 ‘아침’이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의 자체로서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김응신 목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인생의 행보에서 ‘다음’이 없다면, 그 끝은 허망하게 끝나는 어둠이며 절망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마지막 세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영적 어둠에 대한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듣고 보고 자라는 대신, TV,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혀 다른 진리를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모와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10분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1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게임 하는 시간과 TV보는 시간을 합치면 잠자는 시간과 학업에 쓰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소위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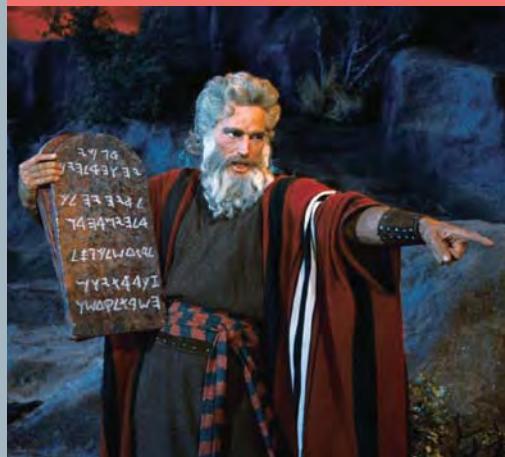
신앙의 대잇기를 통하여 믿음의 언어가 공유되지 않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한국교회에 찾아온 마지막 골든 타임, 이제는 다음 세대를 깨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18 북적북적 독서감상문대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서를 선정하되, 특별히 연령에 따른 생각의 폭과 차이를 염두에 두고 고등부와 일반부를 위한 공통도서 1권 및 각 부문별 도서 1권, 중등부 2권씩 도서를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선정된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심사기간 내내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무려 522명을 통해 응모된 감상문들을 한 편 한 편 주의 깊게 읽으며 심사를 했습니다. 책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잘 이해되고 충실히 녹아있는지(내용이해), 오늘의 삶의 현장에 그 메시지와의 접촉점을 얼마나 비평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지(비평능력), 그리고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른 어휘와 정확한 문장은 얼마나 풍부하게 사용되었는지(문학적 소양)의 세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18 북적북적 독서감상문대회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독교 독서문화가 계속 확산됨으로써,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순응하는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1월의 영락영화



십계 (The Ten Commandments, 1956)

감독 : 세실 B. 데밀

주연 : 찰톤 헤스頓, 윌 브린너, 앤 백스터

상영시간 : 3시간 41분 등급 : 전체관람가

출애굽기를 대형화면에 담은 고전 명작.

이집트 고센 지방에 자리 잡고 수백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히브리인)이 나날이 번성해 가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에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인의 강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한다. 요케벨이라는 히브리 여인은 파라오의 명령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을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낸다. 때마침 강가에서 노닐고 있던 파라오의 딸 비티아가 아기를 발견하고, 모세란 이름을 지어준 다음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운다. 청년으로 자란 모세는 용감하고 품위있는 성품으로 공주인 네프레티리의 연인이 되지만, 왕세자 람세스는 모세를 견제하고 모함한다.



(상)6일 (하)13일

호빗 : 스마우그의 폐허

(The Hobbit: The Desolation of Smaug, 2013)

감독 : 피터 잭슨

주연 : 마틴 프리먼, 이안 맥Քلن, 리차드 아미티지, 케이트 블란쳇, 올랜도 블룸

상영시간 : 2시간 41분(상: 1시간 25분, 하: 1시간 26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사나운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동쪽의 '외로운 산' 에레보르 왕국을 되찾기 위해 호빗 빌보 배긴스가 길을 떠난다. 마법사 간딜프와 난쟁이족 왕족의 후예 소린이 이끄는 13명의 난쟁이족, 레골라스와 그의 파트너 타우리엘이 속해있는 엘프족의 합세로 더욱 강해진 원정대는 외로운 산으로 가는 길에 어둠의 숲에서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베오른과 거대한 거미떼를 만나 다양한 모험을 하게 된다. 마침내 에레보르의 외로운 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이 지금껏 만났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험하고 모두의 용기와 우정, 지혜의 한계를 시험에 들게 한 용 스마우그와 맞닥뜨린다.



(상)19일 (하)26일



사춘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



서은주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중등부 학부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아침을 감사로 눈뜨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의 생활이 맑음임을 기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 주셔서, 자녀가 아침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에서 아기 때 표정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작은 소리로 “아멘”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에 등교하는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교만한 시선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염려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자녀를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선이 되어 우리의 교만한 것대로, 감정으로 자녀를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며 불편한 말들을 늘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사춘기 흔들리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미래 일을 앞당겨 저희 생 각대로 염려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만드셨으니 주께 감사함은 자녀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자녀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주의 눈이 보셨으니 주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춘기의 지진과 같은 가치관의 흔들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무게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청소년들의 세상 속 문화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담대함의 겸손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힘들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구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다보며 자녀의 미래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날**

중등부 제자를 위한 기도문



홍정임 권사
강북·도봉교구
중등부 교사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교사로 세워주시고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며 때로는 너무 까칠하고 반응도 없어 답답할 때도 있고, 통제하기 어려워 힘들 때도 많지만 그 학생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고 함께 우는 교사,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밖 세상은 우리 학생들을 성공이란 이름으로 압박하고 채찍질하며 비교합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잘 보듬어 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한사람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시간에 휴대전화를 보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뤄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아시스와 비투비를 통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특히, 중등부는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학생들의 집단임을 고려할 때 저희가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중등부에서 실시하는 그루터기, YDS, 아웃리치 등 각 부서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고 스스로 협력하며 친교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고 학생들 각자의 꿈을 향해 아름답게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인재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 훈련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갈 중 3학생들과 중등부로 올라올 소년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학교에 잘 정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임대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함께하시어 중등부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남**

하나님 사역을 위한 ‘거룩한 수고’

김경오 장로와의 만남



교회가 일터인 교우들이 있다. 예배와 행사 지원, 시설 운영·관리, 제직부서 지원, 회계 관리, 식당 운영, 청소와 경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들의 수고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거룩한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행정처장으로 4년간의 사명을 마치는 김경오 장로를 만나 교회 행정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유승현 기자



1 직원 춘계 수련회



2 목양관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제설작업현장



3 직원상조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영락애니아의집, 영락보린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 ‘선교부 외국인근로자 선교팀’, ‘제2남선교회’, ‘선교부’ 등을 거쳐 2012년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약사였는데 2008년도에 약국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어, 1년 반 동안 우즈베키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2014년부터 교회 행정처장으로 부름 받아 4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올해로 임기가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의 선교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 소개 및 직원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는 행정처에 소속된 직원들이 약 60여 명 정도 됩니다. 용역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직원들은 교회 내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수고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평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분들의 존재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눈이 많이 온 경우 주일 아침에 교우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통행이 위험해서 직원들이 밤새 눈을 치워야 하는데, 가끔 제가 함께 해보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또 여름철 야간에 폭우가 오는 경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밤에 폭우가 내려 50주년기념관 지하, 교회 식당, 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밭목까지 차서 당직 직원 몇 명이 밤새 수중모터를 켜고 물을 퍼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 ‘아,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하고 절실히 느낍니다.

행사가 있는 주일이면 직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끝나면 천막을 다시 걷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주일아침 예배당의 전기가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당과 각 건물에 있는 수백 개의 불빛을 매일 확인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정성으로 닦고 조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묵묵히 수고하는 행정처 직원들의 모습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가졌던 마음가짐

저는 원래 약사인데 처음에 행정처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게 어떤 뜻이 있으실까 많이 의아했었어요. 세상에서 여러 단체장을 했던 경험은 많으나, 교회 행정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행정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랄데오~!’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처장으로 섬기는 4년 동안 이철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김운성 목사님 청빙되시는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영락의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영락의 직원들은 교회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이면서 직원이죠.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혹 직원들을 갑의 입장에서 대하는 분



김경오 장로(왼쪽)와 박진현 기자(오른쪽)가 인터뷰하면서

이 계셔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이분들을 월급 받는 직원이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늘 친절하게 하자~!”는 기본자세를 강조합니다.

또한, 매일아침 경건회(아침 9시부터 20분/성경과 기도)를 함께하고, 직원들과 성경공부(수요일 오후)도 함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주일날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자칫 예배에 소홀 할 수 있습니다. 또 교구에 소속되어 구역활동도 어렵기 때문에 각 행정 부서별로 자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팀장이 척추 병으로 하반신을 못 써 병원에서 입원 후 재활 치료 중에 무척 힘들어했는데, 직원들 기도의 힘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교회 내 스피커에서 매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교회와 주변에 성탄절 트리를 설치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수고가 없으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기실’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기계실’은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혈관과 같습니다. 또 식당에서는 매주일 육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전날부터 준비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정성과 기도로 수고를 합니다. 결국 이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사역에 집중 할 수 있는 것 같아, 직원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떠납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사랑의 편지에 담긴 현금

영락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포이메네스 영성수련회’를 시작했다. 지난 여름 영락수련원에서 열린 제6차 포이메네스 영성수련회에 사랑의 현금과 함께 편지가 무명으로 전해졌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명의 현금과 편지

“김운성 목사님, 이철신 목사님, 제일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 써 주십시오. 여기 작은 잎사귀 같은, 바람에 흘날리는 연약한 들풀 같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온전히 헌신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의 훌륭하신 두 분 목사님께도 기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강의와 사랑스런 예배…, 모든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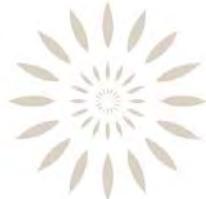
위 수련회를 주최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부터 편지를 전해 받은 선교부는 가을 어느 날 미자립 교회에 그 현금을 전달했다.

가난한 마음과 미자립 교회

편지 속에 나타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란 표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편지의 주인공은 마음 가난한 자의 영성에 깊이 도달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도 그 영성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구유에 뉘신 아기 예수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로 이어졌으리라 생각해 본다. 선교부는 서울노회, 충주노회, 충남노회, 진주노회에 속해 있는 17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돋고 있다. 선교부가 편지를 전하게 된 것은 위 사역과 관련이 있어서이다.

영락수련원을 담당하신 분들의 수고를 통해 진행된 포이메네스 영성수련회를 통해 작은 잎사귀 같은 또 바람에 흘날리는 연약한 들풀 같은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신 아름다운 분의 편지과 기도가 생명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정리 문영환 안수집사(인천교구, 선교부 농어촌선교팀장)



영락교회의 어느 이야기

베다니광장 동판에 새겨진 글

세상엔 이야기가 많다. 어느 날, 한 미국인 교수가 영락교회를 찾는다. 그는 베다니광장 부조 좌우에 있는 동판의 글 내용이 궁금했다. 미국에 돌아간 그는 대학원 제자였던 필자의 동생에게 그 글을 번역해 줄 것을 요청했다.

<p>영락교회 창립</p> <p>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하여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교회 창립 예배를 눈물로 드리니 때는 하느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던 1945년 12월 2일 천리 타향 낯설은 이 언덕 위의 호젓한 집 마루방 그것이 영락교회의 시작이었네</p>	<p>The beginning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p> <p>Twenty-seven believers, having come down to the South to escape persecution by the communists, held their first worship service, with tears, Rev. Han Kyung Jik serving as pastor.</p> <p>It was December 2, 1945, when a westerly wind was hastening the coming of winter.</p> <p>They held the service far, far away from their homes, on a wood-laden floor of a house standing aloof on this hill.</p> <p>This was the beginning of Youngnak Presbyterian Church.</p>
--	---

베다니광장 북쪽 동판 내용 중의 하나





구한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민족의 수난사 끝나는가 하였건만, 분단의 아픔 새로이 시작된다. 실향민들, 그들은 복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영락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반세기 지난 후 다음과 같은 역사가 전개된다.

영락교회 50주년

돋는 해 지는 달
세월이 흘러
봄바람 가을비
어언 50년
이제 세계적 교회로
성장하여
여기 높이 기념관을
세워 봉헌하니
눈은 놀라
이것이 꿈인가 하고
입은 놀라
이것이 참인가 하는도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네

The 50th anniversary of Younnak Presbyterian Church

With the passing of time,
through the rising suns and the setting moons,
the spring winds and the autumn rains,
it's been 50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urch.
Now, it has grown to be a world-class church,
up to the dedication of a Memorial Center
here, standing tall.
The eyes are alarmed into thinking
“Is this a dream?”
The mouths are amazed into questioning
“Is this true?”
The beginning was weak.
God, however, has made the ending greatly
abundant.
To Him and only to Him be
glory and glory.



베다니광장 남쪽 동판 내용 중의 하나

위 동판 글은 부친 은퇴장로 정치근 님의 글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꾼다. 교회 주변 길을 걷는 이들, 세계인들 그 누가 보아도 예배당이 보이는 영락교회 100주년의 모습을……. 지구 촌 시대 영락교회의 모습을…….

정리 정천우 장로



성찬준비 포도주팀 팀원들과 함께

교회 카타콤에서 정갈하게 준비하고 맑은 것을 구별하여 만드는 성찬 포도주



이영희 은퇴권사
종로·성북교구
성찬준비 포도주팀장
(2018년 기준)

먼저 이날까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당시 성찬을 담당하고 계시던 이태원 전도사님의 권유로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권사님으로부터 포도와 설탕의 비율을 배우고, 향아리 속에 담는 약간은 색다른 방법까지 자상하게 일러주시던 선배 권사님의 뒤를 이어온 것이 어느새 나 또한 은퇴를 앞둔 해가 되었다.

여전도회장을 하셨고, 지금은 공주원로원에 계신 정혜옥 권사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30여 년이 넘도록 포도대금 전액을 현금해 주시는 것을 받아 성찬에 쓰일 포도를 구입한다. 농장 사장님께서 적당한 주간을 정해주면 한 주 전 성도들의 발걸음이 뜰한 월요일을 잡아 일년 동안 사용하고 비어 있는 향아리들을 카타콤에서 꺼내와 밀가루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세척을 하고, 카타콤 앞마당에 세척한 향아리들을 엎어 물기를 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태양열로 손을 달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질 때까지 두세 시간 소독을 한다.

열아홉 해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찬을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며 돋고 계시는가를 체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22명의 권사님들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비옷을 입고

항아리를 씻으며, 햇볕이 나와서 소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보면 어느새 하늘이 맑아지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서 항아리를 충분히 소독해주신 게 한두 해가 아니다. 올해도 우중에 항아리를 씻기 시작하면서 걱정 대신 곧 햇볕을 내리쬐실 거라고 믿은 봉사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봉사자들 전원이 카타콤에 모여 앉아 포도를 따서 정갈하게 준비해준 것을 모아 씻어둔 항아리를 다시 한번 마른 행주로 닦고 포도와 설탕을 채워나간다. 오전 10시부터 기도로 시작하여 오후 3~4시가 지날 무렵, 채워진 항아리 뚜껑을 덮고 다시 곁을 말끔히 닦아 반짝거리며 나

란히 줄지어 서 있는 항아리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매월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심하니 기도 많이 해야 한다며 대성찬 때(1월, 10월)마다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준비실을 떠나지 않던 이태원 전도사님의 본을 받아서 팀원 4명이 카타콤에서 손을 맞잡고 간절한 기도로 준비를 시작한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찬예배가 되게 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 포도주를 거르기 시작한다. 먼저 굵은 체에 포도 알맹이를 밟치고 그 알맹이를 압축기로 (예전엔 짤순이로) 두세 번 짠 것과 맑은 것을 구별하여 하루를 온전히 기라앉힌 후, 이튿날 특수제작으로 주문한 고운체로 다시 걸러서 맑은 액이 나오면 준비실에 모여 있던 봉사자들이 잔을 채워 40잔이 들어간 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잔에 넘치는 양과 부족한 양을 검사, 조절하여 성찬 상을 차리게 된다.

봉사를 해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2011년 1월 2일의 대성찬 날을 잊을 수가 없다. 1부 성찬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뛰어 나오던 중 주의력 없는 내가 하필이면 얼음판을 뛰다가 아차 하는 순간 미끄러짐과 동시에 공중으로 몸이 봉 또는 것을 느꼈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부서지고 말았다. '별일 아니겠거니'라는 생각과는 달리 입원을 해서 수술받아야 했다. 4시간의 수술을 앞두고 팔이 너무 부어서 수술을 일주일 뒤로 미뤄야 했고 통증이 심할 테니 진통제를 먹으라고 의료진이 권했지만, 퇴원하는 날까지 통증이 없어 한 번도 진통제를 먹지 않는 나를 신기해하는 간호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렇게 이모저모로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분주하던 주님의 일도 올해 말이면 대부분 끝이 난다. 쓸모없고 허물 많은 죄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며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긴 세월 동안 불평 한 번 없이 "하나님 일이 우선이며 순종해야 한다"고 이해하며 협조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만남**



예배 전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자아정탐”

12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성탄일이 있는 12월, 2018년 마지막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가 12월의 첫날, 첫 토요일 박성은 목사의 인도로 본당에서 드려졌다.

새벽잠을 깨우며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려 온 많은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과 환우, 영락의 성도들, 본인을 위해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자아정탐’(수 2: 1~2)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감사한 일을 12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31 가지 감사’를 적어보고, 반성할 일을 하루 한 가지씩 ‘31 가지 반성’을 적어 봄으로, 감사와 자기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바란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투박해 보이지만 강력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019년 1월 5일(토)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감사’



지난 11월 18일 주일에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또 하나님의 능력(빌 4:10~13)’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고난의 순례전도 생활 가운데 드린 ‘기쁨의 감사’를 본받아,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힘쓰자”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온전한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락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교회의 각 교육부서에서는 ‘추수감사 연극’ ‘감사헌물 드리기’ ‘감사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추수감사주일 특별행사가 열렸고, 베다니 광장에서는 선교부 문화선교팀 주관으로 스티그마워십, 난타 및 우쿠렐레 공연 등 특별공연과 ‘추수감사 과일 나누기’ 행사를 열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따뜻하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창립 73주년 기념주일, 장로·집사 임직예식도 열려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인 지난 12월 2일(주일) 교회창립 7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주로 오시다(마 16:13~18)’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찬양예배 시에는 제46회 장로 장립 및 제47회 집사 안수 임직예식이 있었다. 서울노회장 이화영 목사가 ‘충성하세요(수 14: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장로 피택자 3명, 안수집사 피택자 19명이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았다. 관련명단 58면

취재 박현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18년 성탄 점등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대림절에 앞서 성도들과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께한 가운데 본 교회 남문 앞에서 성탄점등식을 진행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핸드벨, 올드보이즈, 솔리데오 색소폰, CEBC 찬양대 및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의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요 3:16)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제공 교육부 사진 원종석 기자

창립73주년 기념음악예배



지난 11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영락교회 창립73주년 기념음악예배’가 베다니홀에서 개최되었다. 최승도 목사는 ‘은혜를 잊지 말라(시 103:1~2)’는 말씀을 통하여 “73년 동안 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범적인 교회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전했다.

갈보리찬양대는 박신화 장로의 지휘 가운데 오르간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F. J. Haydn’ 전주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찬양과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비전기도회, 2019 수능 당일 기도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15일(목) 벨엘기도실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비전기도회가 열렸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영역별 시간에 맞추어 김정희 목사, 임현우 목사, 남정열 목사, 임대순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돼 하나님께서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고등부와 베드로부는 시험을 치른 후 교회로 모인 수험생들을 위해 풍성한 간식과 축복하는 마음을 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크리스천 청년을 위한 시간, ‘청년! 멘토를 만나다!’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고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일터, 소명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15일(목)부터 18일(주일)까지 ‘청년! 멘토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드림홀에서 진행됐다.

15일에는 글로벌 크리스천 멘토들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할 사회에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주제를 통해 설명했고, 16일에는 신앙의 청년을 세운 어머니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17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기독교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여러 멘토들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7 Track’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만나 함께 책을 읽으며 나눔으로 이 사회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18일에는 대학부, 청년부 연합예배로 CCM가수 지미선과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화보 65면

의료선교부 영락호스피스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지난 11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의료선교부 영락호스피스팀(조장 엄신원 권사)이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영락호스피스팀은 2000년 8월에 창단됐으며, 19년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영락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경로시설들에 방문해 매월 2차례씩 봉사를 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귀한 상을 받게 됐다.

제공 영락호스피스팀 사진 원종석 기자



북한선교부, 『20주년총람』발간 기념예배와 20주년 기념세미나



북한선교부가 그동안의 역사자료를 정리한 20주년총람을 발간하며 감사예배를 드리고,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1일(토)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돌이 하나가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황광성 장로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주현 안수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김병로 교수가 ‘북한선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신대 박상진 교수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독교 학교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제공 북한선교부

제1남선교회, 김동길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열어



선교부가 주최하고 남녀선교회가 후원한 ‘김동길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가 지난 11월 23일(금) 저녁 6시 30분에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박성만 장로의 인도와 김운성 위임목사의 기도에 이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목으로 김동길 교수(연세대 명예)는 “나라의 위기때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위인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셔서 이만큼 유지 발전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기독교란 때로 사도 바울처럼 희생이 필요한 종교이므로 모두 기독교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공 제1남선교회 사진 원종석 기자

‘쉼’으로의 초대, 40대 여성 전도대상자를 위한 시간



선교부와 제4여전도회가 협력해 기획한 40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쉼’이 지난 11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 봉사관 405호에서 진행됐다. 비 신자를 비롯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교우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천연비누 만들기, 간증(이화숙 집사), 다과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영화 상영과 흑설탕 스크립트 함께 만들어 보는 유익한 시간도 마련했다.

제공 제4여전도회



사회봉사부,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사회봉사부는 지난 11월 19일(월) 제1식당에서 매년 진행해 오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박재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경건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행 9:36~42)'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며, 봉사자들의 사명과 감사, 기쁨을 강조했다.

이날 임원진과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헌신 봉사해 담근 총 600여 통(5,400kg)의 김치는 중구청에서 선정한 중구 관내 8개 동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500통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본 교회 자유인들에게 80통, 가정복지팀이 돌보는 가정에 25통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원종석 기자

사회봉사부, '겨울 이불 나누기'



사회봉사부는 지난 11월 21일(수) 을지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영락교회 겨울 이불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해 중구청 및 각계각층의 지원으로 100여 가구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였다. 사회봉사부는 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 38세대에게 극세사 항균 겨울 이불을 기증했다. 해마다 각 지역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중, 전달 받은 따뜻한 이불을 감싸 안고 영락교회로 첫 걸음을 떼는 교우를 보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원종석 기자



서는 사랑부에서 20주년을 기념해 준비했던 연극을 선보였다. 보린원과 애니아의집은 연합예배를 드렸고,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이 힘찬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추수감사예배

11월 13일(화)부터 20일(화)까지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한 기관인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영락경로원, 영락소규모요양원과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영락애니아의집, 합실어린이집, 영락어린이집에서 각각 추수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감사하며 과일을 헌물하고 특송을 부르기도 했다. 경로원에

2018 하반기 기도학교, 말씀으로 기도하기



지난 11월 7일(수)과 14일(수) 2일간 드림홀에서 '중보기도의 바른 이해와 다음 해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을 위한 2018 하반기 기도학교가 열렸다.

이번 기도학교는 김운성 위임목사와 김정희 목사가 강의했다. 두 분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말씀을 통한 기도에 관한 강의는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한 지침이 되어 그곳에 모인 300여 명의 교우들에게 기도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제공 영락기도대 사진 원종석 기자

월드비전에 지진피해성금 전달



지난 11월 22일 본 교회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에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성도들의 2017년 성탄헌금이다. 김운성 목사는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피해지역의 이재민 2만여 가정에 식량과 식수를 비롯한 각종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성금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민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모아주신 영락교회 성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취재 김한기 기자

국제예배 창립 2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예배, '우리는 함께입니다'

지난 11월 18일(주) 오후 3시 30분 국제예배 창립 2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연합예배가 선교관에서 드려졌다. 1998년 시작된 국제예배는 20년 동안 빌 메이저스 목사(1998~2012), 폴 송 목사(2012~2016), 크리스틴 한 전도사(2016~2017), 장이삭 목사(2018~현재) 등 총 4명의 목회자가 거쳐간 영어예배 공동체이다.

장이삭 목사는 'We are in this Together (딤후 4:7~8, 우리는 함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여 년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제1식당으로 이동해 추수감사만찬을 진행하며 함께 축복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국제예배부

믿음과 감사의 40년 우정, 호산나 찬양대 철원 영일교회 방문



호산나찬양대가 지난 11월 24일(토)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 위치한 영일교회를 방문해, 창립40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축하했다.

이 교회는 약 40년 전 군종병이었던 권영종 목사가 개척하여 최전방 부대 전도를 위한 선교사역으로 건축된 교회로, 영락의 '영'과 101부대의 '일'을 따서 '영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오랜 기간 호산나 찬양대와의 인연을 이어가며 최근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40년의 우정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복된 자리에 호산나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제공 박진현 기자 사진 호산나찬양대

교역자-직원 -중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지난 11월 15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와 직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1시간 가량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통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해 화재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 2차에 걸쳐 전체적으로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훈련이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제공 행정처



CTS-TV에
소개된
소방훈련

매월 <만남>에서는 성도여러분의 원고(수필, 간증), 독자의 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youngnak-hb@daum.net
☎ 2280-0197~8





2019년 새해 달력을 발간하며



2019년도 달력 표지와 탁상형 달력의 월별 작품사진

홍보출판부는 2019년 교회 표어인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 1~2)’를 기반으로 성도들의 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달력을 기획했다. 특별히 2019년도 달력에는 성도들이 달력을 보면서 월별 성경말씀을 한 달간 묵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벽걸이형 달력의 월별 사진들은 본 교회의 4대 목표인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그리고 봉사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새해를 알리는 1월 게재사진으로 위임목사께서 부임 후 첫 예배 축도사진을 통해 본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 드린 것을 필두로 의료선교 현장의 모습과 교육부서들의 다양한 신앙 활동들, 부활의 고난과 영광, 뜨거웠던 여름 산상기도회, 화목하게 하는 선교와 진중세례식,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의 성탄 잔치 등으로 선정했다.

탁상형 달력은 벽걸이형 사진과 상이하게 작품 중심으로 선정해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탁상형 달력에 선정된 작품들은 우리 영락미협 회원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간 기도하며 완성한 귀한 신앙고백의 작품들로써 대학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배포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홍보출판부 봉사자들과 영락미협 회원들, 그리고 유관 제직부서 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 달력이 걸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린다.

제공 김정훈 집사(홍보출판부 홍보위원장)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제 46회 장로(3명)



김호섭



양성호



김종태

제 47회 안수집사(19명)



홍성표



김은형



손두상



변계환



박상수



문영환



정효선



양승관



임성기



조광래



현재호



최현우



전태성



김종범



최충권



박효진



강효식



정광훈



조민태

은퇴 항존직



은퇴장로



김의환



이희령



김원상



황광성



전재호



조영리

은퇴안수집사



조정행



최성남



이한구



최기홍



이기출



주상호



백수현



백호



장종희



최병일



안병기



정오도

이임 교역자



목사



이규정
영락기도원



이사도
교육부, 고등부

전도사



방명숙
예배위원회(기도)
서초교구



정선근
대학부
금요찬양팀



황재영
종로·성북교구
목양부



조인기
강서·구로·양천교구
교사교육부



성현모
예배위원회
노원교구



서평화
청년부



김종훈
관악·동작·금천교구
새가족부



손동혁
강북·도봉교구
청년부



김강림
안양·수원교구
평생대학, 금요찬양팀



김충엽
IT미디어부



권현일
선교부

성명 아래 기재 내용은
2018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위하여 오랜 세월 헌신봉사하신 은퇴제직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자격** : 2018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에 한하여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주일)로 마감합니다.
-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 (은퇴제직상조회)
- ▣ **가입 절차** : 수납창구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수령하여 본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2280~0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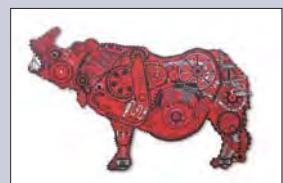
회장: 김충손 장로 총무: 김영대 장로

2018년 12월 31일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작가 노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조화와 질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환경적으로도 완벽한 창조물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은 무시되고 계속 희생당해 왔다. 작품 '빨간 코뿔소'는 자연을 상징한다. 코뿔소는 사람들의 탐욕 앞에 설 땅을 잃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연을 기계화시키고 조작하고 싶어한다. 코뿔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란 빨갛게 화를 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김갑수 집사(강서·구로·양천교구)



>> 독자의견

- 문득 옆에 있던 만남지 글을 읽다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감사함을 나의 삶에서 찾게 됩니다. 앞으로 만남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구술하거나 글로 정리한 '삶의 간증'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역장들과 구역식구들이 함께 꾸려가는 구역의 작은 신앙공동체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창일 안수집사(종로·성북교구)



영락역사자료

11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계화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선교대회 하용조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4건- 한경직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건- 박조준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9건- 임영수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13건- 영락교회 상례용 찬송가 제4집 외 기타행사 관련 일반음성테이프 10건- 김삼환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3건- 고(故) 한경직 목사 하나님 곁으로 VHS 1건
김명자 은퇴집사 (노원교구)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 만남 제205호~216호 합본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3.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4.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1月

1일(화)	신년예배, 임직식
1일(화)~3일(목)	신년기도회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12일(토)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13일(주일)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권사 임직예배, 제직회
20일(주일)	여전도회 현신예배, 심방준비회
27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제직부총회 1차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11월 4일~11월 25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1월 4일	김계자	16	009
	허정숙	06	000
	권순희	04	055
	김기태	02	067
	김정란	11	027
	김승훈	04	046
	조소희	09	052
	최유미	05	021
	박대열	16	014
	김지연	06	014
	김도운	06	014
	박선우	12	015
	이주원	14	039
	박온유	07	061
	백지애	16	054
	박연우	12	015
11월 6일	이하람	02	052
11월 11일	이성모	10	022
	이상정	12	023
	이혜경	10	022
	남윤희	05	000
	이미숙	05	033
	박혜순	06	000
	김가영	11	014
	조승연	01	036
	이승민	18	035
	신혜린	04	038
	장예준	03	004
	이민규	10	057
	정혜린	16	033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1월 18일	오경애	01	000
	고순화	08	000
	한성희	11	000
	이계순	10	000
	박중열	10	000
	이수진	03	000
	김병국	07	000
	김현지	18	023
	서지현	04	043
	조현명	13	027
	김도윤	12	038
	전지윤	03	033
	김강우	06	063
	남태현	18	000
	박동석	04	000
	손니나 (SON NINA)	16	000
	심준화	18	000
11월 25일	김영애	04	000
	문영선	04	000
	김마리나 (KIM MARINA)	16	000
	권구형	10	000
	조수정	04	000
	박재희	10	022
	정시엘	02	000
	김담윤	06	011
	이율	03	018
	김준우	06	039
	김지원	16	015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컬러링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2019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yaliza

청년, 멘토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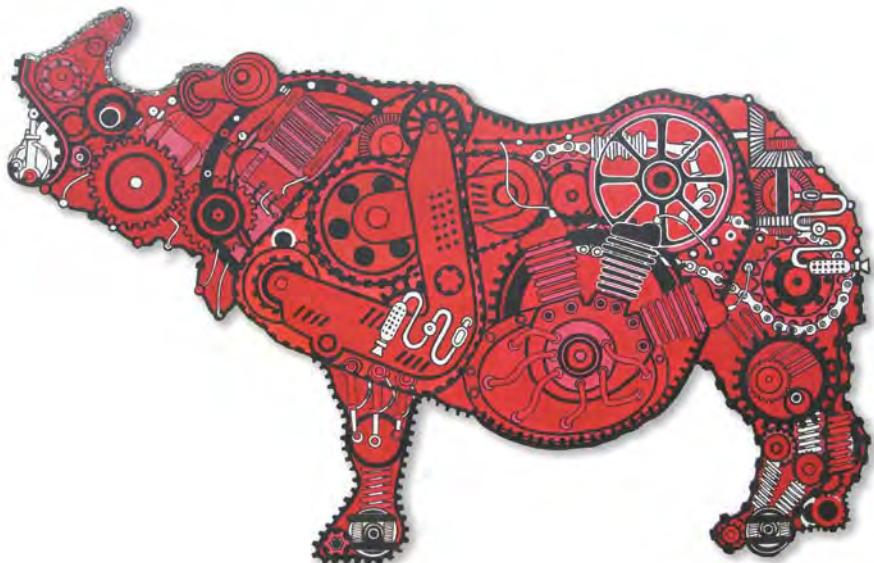
지난 11월 15일(목요일)부터 18일(주일)까지 드림홀에서 '2018일터소명컨퍼런스'가 「청년, 멘토를 만나다」는 주제로 열렸다. 진로와 일터,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길을 찾는 영락의 청년들을 위한 귀한 도전과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곳 현장 모습을 화보로 담아보았다.



사진 원종석 기자
관련 기사 52면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김갑수 집사(강서·구로·양천교구), 보드에 아크릴릭, 205×130cm, 2016

빨간 코뿔소(Red Rhinoceros)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25절)